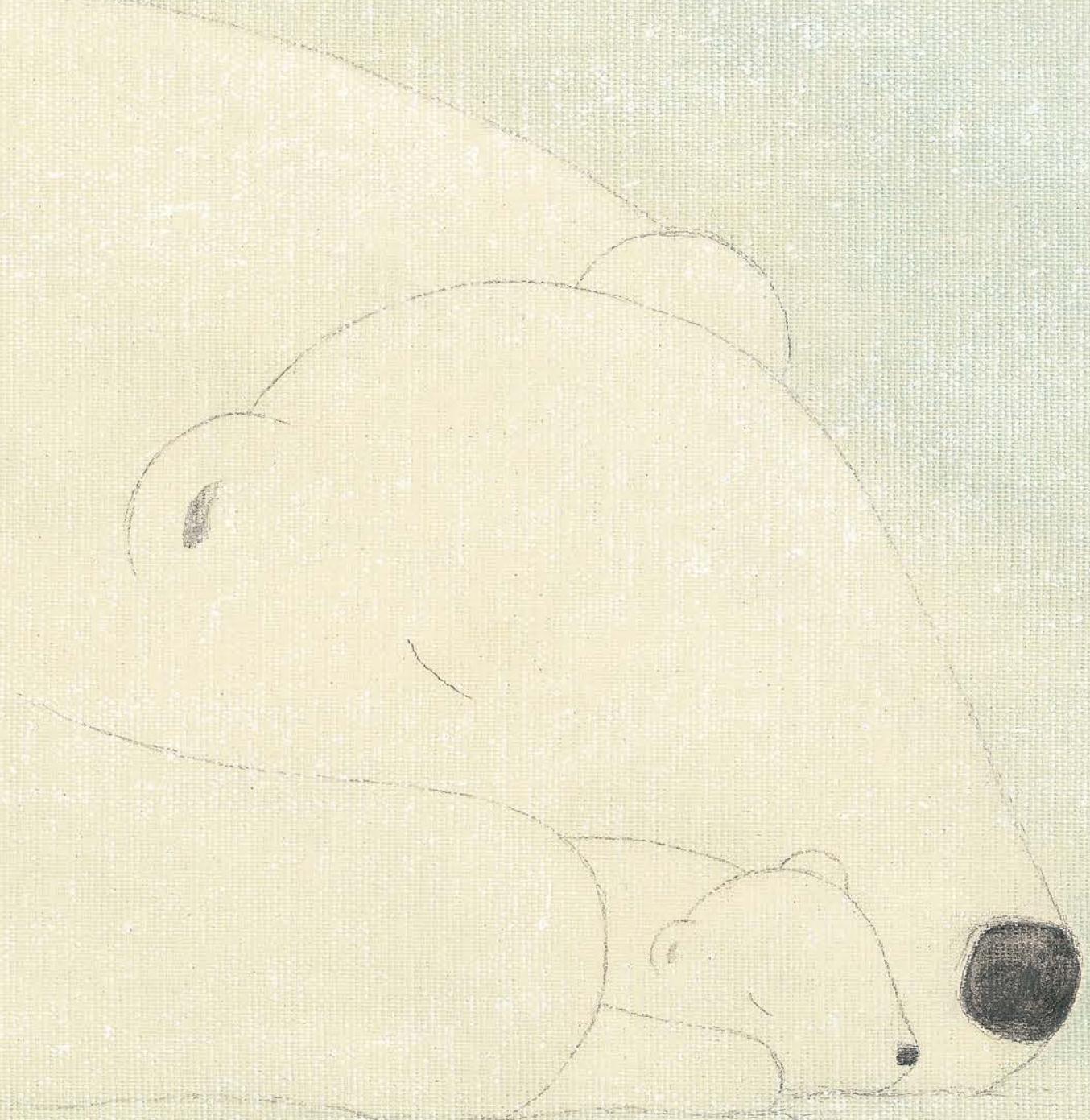


이루리와 엠마누엘레 베르토시가 새로 만든 또 하나의『북극곰 코다 첫 번째 이야기, 까만 코』

까만 코다

글쓴이 | 이루리 • 그린이 |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이루리 글

1969년 10월 27일생. 전갈자리. 어릴 땐 의사를 꿈꾸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소설과 연애를 했습니다. 서른 살에 『지각대장 존』과 『프레드릭』을 만나 소설과 헤어지고 지금까지 그림책과 뜨겁게 연애 중입니다. 그림책이 좋은데 아무도 그림책 얘기를 들어 주지 않아서 그림책 서평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화와 그림책을 번역했고, 2009년에 짹꿍 이순영과 함께 도서출판 북극곰을 세우고 지금까지 100여 종의 책을 낳았습니다. 특히 『북극곰 코다, 까만 코』『북극곰 코다, 호』『까만 코다』등 북극곰 코다 시리즈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11개 국가로 수출되어 아동문학계의 한류 스타가 되었습니다. 2014년 여름부터는 전국을 쏘이며 그림책의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은 책으로는 『천사 안젤라』『아빠와 함께 그림책 여행』『아빠와 함께 그림책 여행 2』『지구인에게』등이 있습니다. 그림책 전문 서점 프레드릭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그림

1970년 이탈리아 북동쪽 끝에 있는 프리울리 주 트리비냑노 우디네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2011년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세계민속축제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대상, 2009년 파도바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2003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2000년 보르다노 내셔널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심사위원 대상, 1999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1998년 보르다노 내셔널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프리울리 언어 부문 대상 등 많은 상을 받습니다. 국내에는 『눈 오는 날—장서리 내린 날』과 『나비가 되고 싶어』『누구세요?』가 출간되어 독특한 그림과 아름다운 이야기로 많은 언론사와 비평가로부터 호평과 찬사를 받았으며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다양한 공예와 미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곰 꿈나무 그림책 5



까만 코다

2015년 5월 1일 개정판 1쇄

글 이루리 || 그림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편집 이진아 || 디자인 강해령 || 마케팅 최은애

펴낸이 이순영 || 펴낸곳 북극곰 || 출판등록 2009년 6월 25일 (제 300-2009-73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0 B106호 북극곰 || 전화 02-359-5220 || 팩스 02-359-5221

이메일 bookgoodcome@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bookgoodcome.com>

ISBN 978-89-97728-84-8 75810 || 값 9,000원

글 © 이루리 2012

그림 ©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2012

이 책의 국내외 출판 독점권은 도서출판 북극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5012819)」

까만 코다



이루리 글 •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그림

북극곰 마을에
사냥꾼 보바가 나타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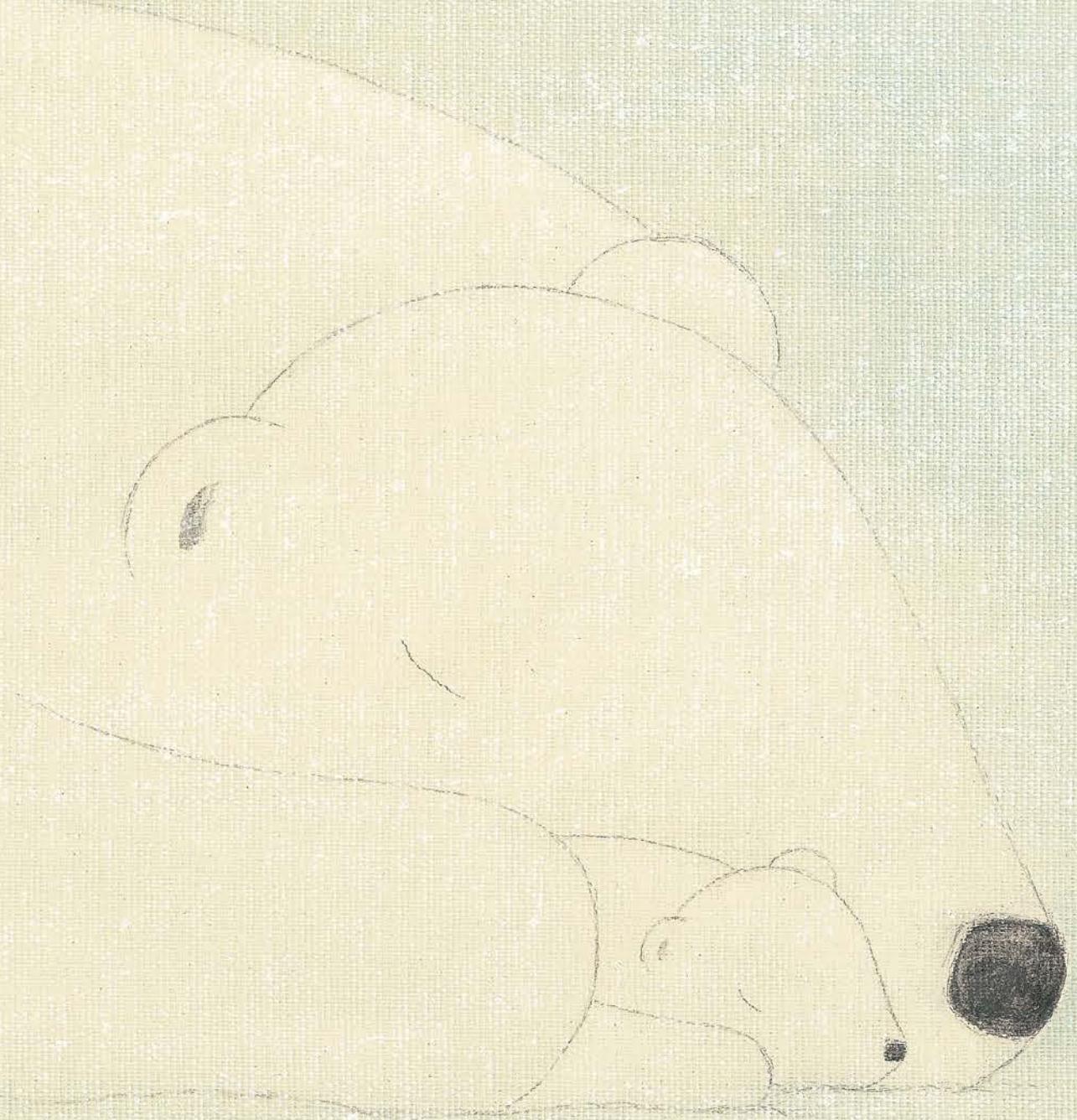
보바는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북극곰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하얀 눈으로 뒤덮인 북극에서
눈처럼 새하얀 북극곰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북극곰에게도 숨길 수 없는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유난히 크고 **까만** 코였지요.





사냥꾼 **보바**가 찾고 있는 것도
바로 북극곰의 **까만 코**였어요.



사냥꾼 **보바**가 갑자기 외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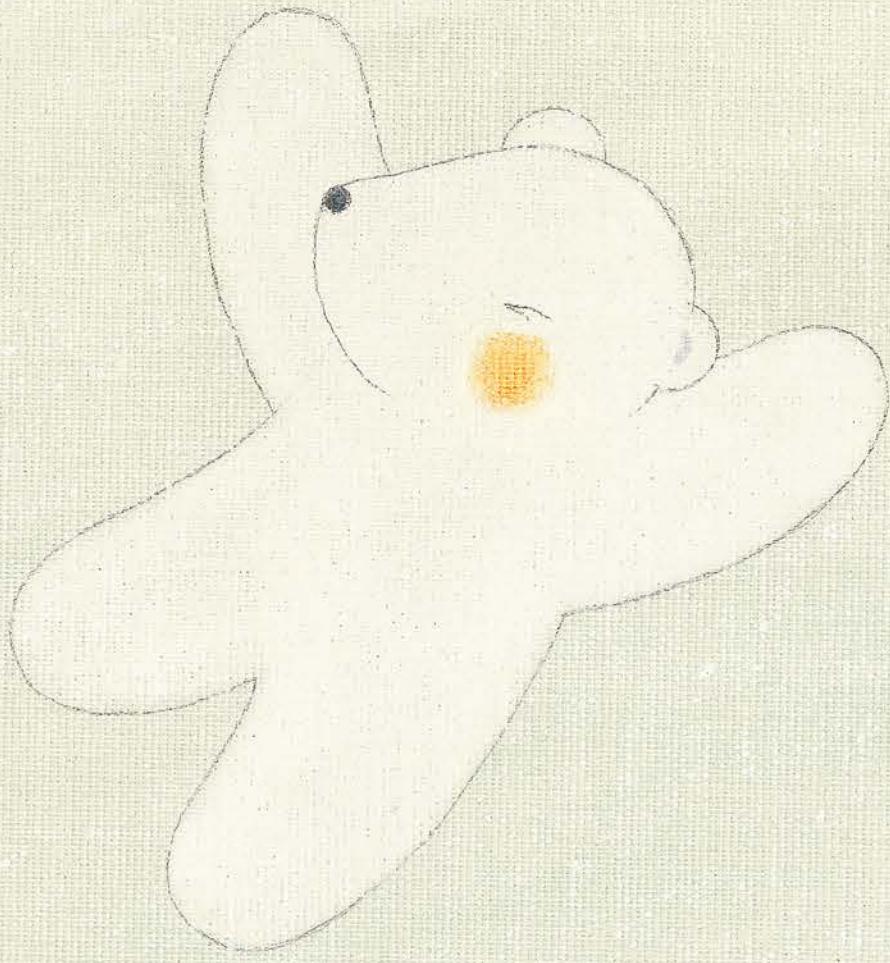
“까만 코다!”





두 개의 까만 코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어요.





춤추는 까만 코는
눈밭에서 목욕을 즐기던
아기 곰 코다와 엄마 곰이었어요.



엄마 곰은 까만 코를 벌름거렸어요.
“사냥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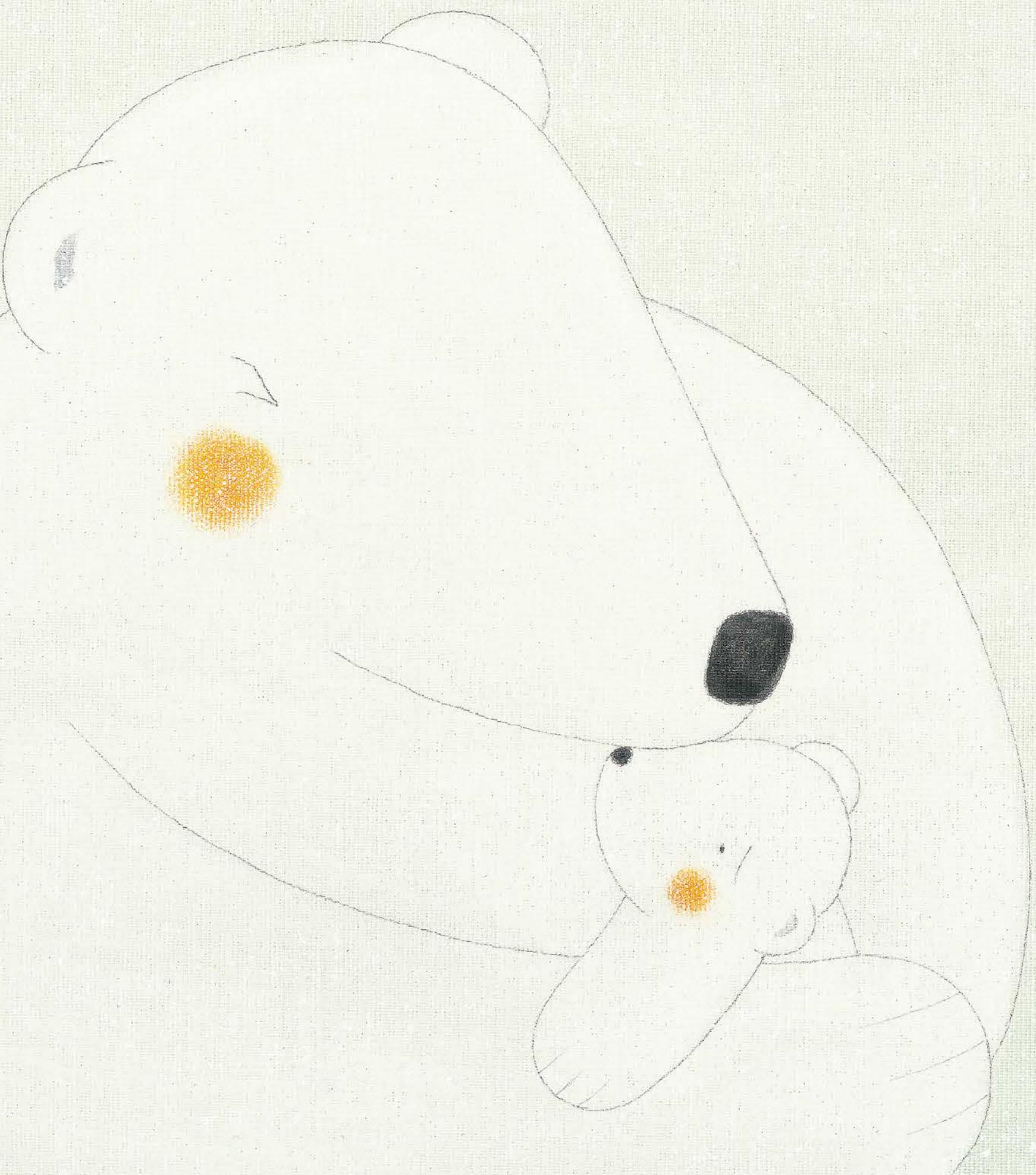
보바는 깜짝 놀라 총을 내려놓았어요.

까만 코 하나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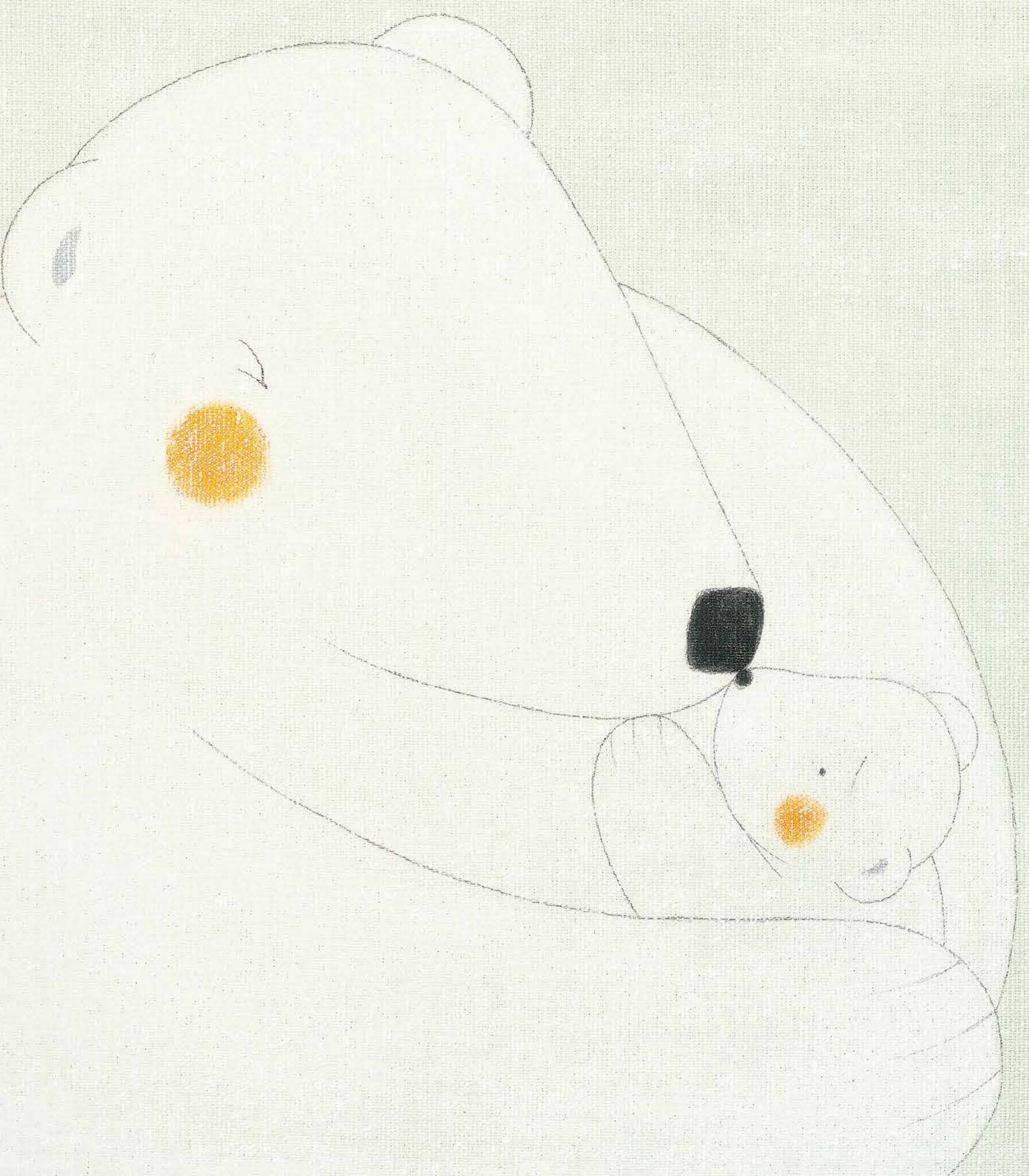
보바는 눈을 한 번 비비고
다시 총을 겨누었어요.





엄마 곰은 코다를 온몸으로 끌어안았어요.

“부디 우리 아기를 살려 주세요!”



아기 곰 코다도 엄마를 따라 기도했어요.
“부디 우리 엄마를 살려 주세요!”



코다는 두 손을 모아
엄마의 **크고 까만 코**를 가려 주었어요.
때마침 눈보라가 휘날리기 시작했어요.







“어? 까만 코가 어디로 갔지?
까만 코에 날개라도 달렸나?”



하는 수 없이
보바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코다와 엄마의 까만 코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축복하듯 내려왔어요.









이제 베르토시와 새로 작업한『까만 코다』를 세상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리가 그림을 그린『북극곰 코다 첫 번째 이야기, 까만 코』가 동양적인 봇 터치와 만화적인 상상력이 어우러져서 간결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감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면, 베르토시가 그림을 그린『까만 코다』는 전통적이며 정교한 회화 기법과 동화적인 상상력이 수려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북극의 풍경을 생생하면서도 서정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까만 코다』를 만든 이야기 중에서